

끝나지 않는 이야기

1. 생명의 철학, 변화의 철학, 불변의 철학

1. 문자의 나라, 주(周)의 삼경(三經)

- 周詩(詩·禮·樂), 周書, 周易
- 현재를 노래하고,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예측한다.

2. 세 개의 역(易)

- 태복은 세 가지 역법을 주관한다. 첫째가 연산이고 둘째가 귀장이고 셋째가 주역이다. [周禮 春官 : 大卜掌三易之法 一曰連山 二曰歸藏 三曰周易]
- 역에는 삼가가 있으니 첫째가 연산이고, 둘째가 귀장이고, 셋째가 주역이다. 복희씨가 짓고 문왕이 만든 것이다. [論衡 : 易有三家 一曰連山 二曰歸藏 三曰周易 伏羲所作 文王所造]

★按 三易之名 皆緣首卦 連山以艮爲首 上艮下艮 故曰連山 歸藏以坤爲首 萬物皆歸藏于地 故曰歸藏 周易以乾爲首 乾元亨利貞 春夏秋冬 周而復始 無有窮期 故曰周易 鄭論及賈疏所言是也 孔疏所據非也 : 尙秉和 周易注釋 總論

★釋名(劉熙)云 : 山 產也 產生物也. 說文云 : 山 宣也 謂能宣散氣生萬物也

3. 생명의 철학

- 주역은 일정 수의 기호로 이루어진 이미지와 수, 그런 요소들의 조합에 의해 말하고 있는 궁극적인 주제는 생명. 주역에서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변역의 원리는 결국 생명의 끊임없는 탄생(生生之謂易)을 의미한다.

4. 변화의 철학

- 변화는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되며 그것을 象이라고 한다. 따라서 주역의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5. 이야기의 철학

- 주역은 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구성한다. 주역의 이야기는 기본적으로는 음과 양이라는 두 개의 상이 만나서 일으키는 변화다. 둘이 만나서 여덟 개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는 다시 64개의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64괘는 64개의 커다란 이야기이고, 64괘를 구성하는 384개의 효는 384개의 작은 이야기이다. 그래서 주역을 읽는다는 것은 가장 오래된 이야기를 읽는 일이다. 사람들은 이야기가 현실의 모사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 이야기가 현실을 규정한다. 어떤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는지 살펴보면 어떤 세상을 꿈꾸는지 알 수 있다.

2. 글, 말, 뜻 그리고 그림[象]으로 하는 철학

1. 글[書], 말[言], 뜻[意] 그리고 그림[象]: 말로 하는 철학, 글로 하는 철학, 그림으로 하는 철학

- 상상(想像)만으로 가능한 세계: 겸(謙), 명이(明夷), 사(師), 복(復)...
-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글은 말을 다하지 못하고 말은 뜻을 다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성인의 뜻을 알 수 없단 말입니까.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성인은 상을 확립하여 뜻을 극진히 했다. [周易 繫辭傳上 : 子曰 書不盡言 言不盡意 然則聖人之意 其不可見乎 子曰 聖人立象以盡意]

★韓非子 解老: 人希見生象也 而得死象之骨 案其圖以想其生也 故諸人之所以意想者 皆謂之象也 今道雖不可得聞見 聖人執其見功以處見其形 故曰“無狀之狀 無物之象”

2. 易의 字義

- 일월역(日月易), 석척역(蜥蜴易), 갑골문의 易자 등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데 모두 변화를 의미하는 글자이다.

3. 궁극의 분류 기호 : 陰陽(태극, 양의, 사상, 팔괘)

- 周易 繫辭傳上 : 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역에 태극이 있으니 이것이 양의를 생성하고 양의가 사상을 생성하고 사상이 팔괘를 생성한다.)

★揚雄: 太玄經: 81卦

★焦延壽: 焦氏易林: 4096卦

4. 태극(太極), 양의(兩儀), 사상(四象)

太極 : ○

兩儀(陰陽) : - (양) -- (음)

四象 : == (태양) == (소음) == (소양) == (태음)

5. 팔괘(八卦)

☰ 건乾, 天(하늘), 健, 父.....

☱ 태兌, 澤(연못), 說, 少女.....

☲ 이離, 火(불), 明, 中女.....

☳ 진震, 雷(우레), 動, 長男.....

☴ 손巽, 風(바람), 遜, 長女.....

☵ 감坎, 水(물), 險, 中男.....

☶ 간艮, 山(산), 止, 少男.....

☷ 곤坤, 地(땅), 順, 母.....